

발간사

제주도는 동서로 약 73km, 남북으로 41km인 타원형 모양의 화산섬으로, 섬 중심부에 높이 1,950m의 한라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도는 섬 전체가 다양하고 독특한 화산 지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땅위에는 크고 작은 오름이 약 360여개가 펼쳐져 있고, 땅 아래에는 160여개의 용암동굴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화산섬에 특이하게도 많은 습지가 섬 전역에 흩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되어 보고된 습지만 하더라도 약 320여개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주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습지가 5개로 국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예전 물이 귀했던 시절에 습지는 주민들의 음용수와 생활용수 또는 우마 급수용 수원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지하수 이용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습지를 단순히 쓸모없는 땅으로 생각하여 매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설·정비함으로써 습지의 고유 생태를 훼손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한 곳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습지는 지구상의 생물 중 약 2%가 살고 있고, 어업활동의 90%가 습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습지는 육지와 물을 이어주는 중간단계의 생태적 환경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많은 양의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수생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생명의 원천”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정화와 홍수조절 등 환경적·생태적·경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천혜의 자연자산으로 보전되어야 하고 현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주의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비롯한 습지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 생물다양성 보전과 습지의 관계 등에 관해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특히, 제주지역의 습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자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번 제주발전연구총서16호에서는 습지에 대한 개념과 기능 그리고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고 제주지역 습지에 대한 분포 현황과 각 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상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발전연구총서16호 발간을 계기로 제주의 습지를 널리 알림은 물론 습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제주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